

천리교의 ‘공간·장소·방위·시간’에 대한 인식과 정토세계

- 나카야마 미키의 종교체험을 중심으로 -

장재진*
sira113@naver.com

<目次>

- | | |
|--------------------------------------|--------------------|
| 1. 시작하는 말 | 4. 세계 중심의 확장과 정토세계 |
| 2. 종교체험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 | 5. 마치는 말 |
| 3. ‘열 가지 완전한 신’의 방위와 ‘만대(萬代)’의
시간 | |

主題語: 천리교(Tenrikyo), 나카야마 미키(Nakayama Miki), 감로대(Kanrodai), 공간(space), 장소(place), 방위(direction), 시간(time), 정토세계(World of the Pure Land)

1. 시작하는 말

종교의 세계관은 공간, 장소, 방위에 시간의 의미가 부여되면서 질서와 규범이라는 상징적 체계를 제시해 왔다. 종교문화의 현상에 있어서 공간의 분할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이중적 인식과 함께 인간의 세계와 초월적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엘리아데는 인간이 거룩한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이며,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사란 다수의 성현(聖顯, hierophany)으로서, 거룩한 현실의 드러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자연은 우주적 신성성(神聖性)으로서 자신을 열어 보일 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우주는 그 총체성에 있어서 하나의 성현(聖顯)이 될 수가 있다.¹⁾

일본의 근대 신종교 가운데 하나인 천리교(天理教)의 교조인 나카야마 미키(中山美伎, 1798

* 동명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메르치아 엘리아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 『성과 속, 종교의 본질』 학민사, pp.11-13

~1887)에게 있어서 ‘오템의 신(元の神)’과의 만남은 하나의 성현(聖顯)으로 믿어진다. 나카야마의 신체를 통한 거룩한 것의 드러남은 다시 집터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을 통해서 확장된다. 신체와 집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간과 장소의 특성은 기하학적으로만 인식되는 세계가 아니라 “초월계와 무수한 교섭을 행할 능력을 가진 실존적이고도 거룩한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²⁾ 새로운 세계의 창건을 가능하게 한다.

나카야마는 천리교의 교리를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공간, 장소, 방위’와 ‘시간’에 대해 자신의 신비체험을 중심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간을 장소로 인식하는 과정이나 방위를 통한 신격과의 합일,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식은 이상세계를 향한 또는 이상세계라고 인식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천리교의 천륜왕신앙은 불교의 미륵하생신앙, 미타정토신앙, 유심정토, 영장정토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이에 대한 혼합적인 변용과 습합을 통해 현실정토인 이상 국토 실현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를 통해서 논지는 나카야마가 종교체험을 함으로써 느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체에서 만대의 세계까지 공간과 장소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태초의 진흙바다에서 인간 창조까지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 창조의 ‘본과 도구’가 형성되는 과정이 방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열 가지 완전한 신(十全の神)’들이 ‘인간의 몸’과 ‘세계’와 ‘하늘’에서 하는 역할과 이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별에 부여한 방위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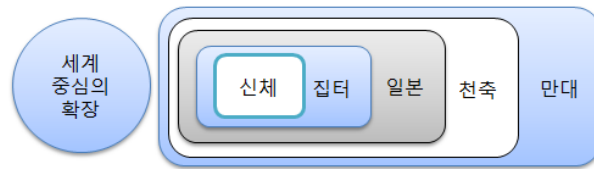
또한 만대(萬代)라는 세계를 지각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인식과 존재의 관계성을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근대 일본 신종교의 유토피아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정토세계의 지향과 구현의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종교체험에 나타난 공간과 장소

다양하고 복잡한 관념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공간을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가치기준에 따라서 분할하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간은 서로 다른 종교문화권의 특정한 장소가 된다. 공간조직의 근본 원리는 인간 신체의 자세와 관련된 구조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신체의 긴밀한 경험과 타인과의 긴밀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하고, 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조직한다.³⁾

2) 메르치아 엘리야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 앞의 책, p.57

나카야마 미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장소는 ‘자신의 신체’와 ‘집터’이다. 나카야마에게 내린 신(神)은 “으뜸의 신, 진실한 신”이다.⁴⁾ 그리고 나카야마의 신체가 곧 이 신들이 머무는 사당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신체는 ‘타이나이(たいない)’ 즉, 태내(胎内) 또는 체내(體內)를 뜻하기도 한다. ‘가장 거룩한 자가 세계를 태아와 같이 창조하며 태아가 배꼽 부위에서부터 성장해 가듯이 신은 배꼽에서부터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며, 거기서부터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간다.’⁵⁾고 주장하는 헤브라이의 전승과 유사하다. 신의 사당으로서의 ‘타이나이(たいない)’는 집터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천축으로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만대(萬代)라는 세계를 지향한다.



<그림 1> 나카야마가 인식한 세계중심의 확장

나카야마의 『오후테사키』에는 ‘일본(日本)’이라는 장소가 언급되는데 이 일본이라는 장소성은 세계의 중심으로 ‘집터’라는 장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이 일본을 마음대로 하였다. 신의 안타까움,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일본이 외국을 마음대로 한다. 모두 이것을 명심하라, 외국의 땅을 일본의 땅으로 하겠다.”⁶⁾는 내용으로 볼 때 나카야마가 인식한 세계의 중심은 으뜸의 신이 강령한 ‘자신의 신체’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외국(천축 등)’으로 ‘외국(천축 등)’에서 ‘세계(만대)’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카야마가 체험하고 인식한 세계는 여러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존재의 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천리교의 의례를 통해서 감로대(甘露臺)가 있는 공간과 장소를 축으로 본 경우는 감로대가 있는 터전에서만 신악근행⁷⁾이 가능함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달리 ‘오야가미(親神), 즉 아버지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인

3) 이-푸 투안 저/구동화·심승희 역(2011)『공간과 장소』도서출판 대운, pp.63-64

4) 天理教教會本部(1995)『稿本 天理教 教祖傳』天理教道友社, p.1

5) 메르치아 엘리야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 앞의 책, p.40

6) 임태홍(2005)「19세기 동아시아 신종교의 탄생과 변용」『한국철학논집』16집, 한국철학사연구회, p.332

7) 신악근행은 인간 창조 때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것과 함께 병의 근원을 단절하여 이 세상을 양기(陽氣, 즐거움) 있는 삶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 神樂歌에 맞추어서 박자목과 악기 등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이다. (조현범(2013)「천리교의 근행의례」『종교연구』73집, 한국종교학회, p.39)

히노키싱(ひのきしん)⁸⁾은 터전이나 개별교회와 같은 장소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천리교의 의례적 실천으로 축의 개념을 달리한다.

종교적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가까이 살기를 추구한다는 정의를 전제하고 보면 나카야마가 그의 나라인 일본이 대지의 가운데 부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도시인 야마토가 우주의 배꼽을 구성한다고 여기며, 무엇보다 감로대가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주를 재현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⁹⁾

천리교는 나카야마가 태어나고 자라고 신비체험을 한 나라의 야마토 지역이라는 장소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카야마가 살고 있던 집터, 즉 감로대(甘露臺)가 위치한 자리가 세계의 중심장소이며 나카야마의 신체가 세계의 중심이다. 여기서 감로대(甘露臺)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룬타족 아킬파인의 신화전승의 신적존재인 늑바쿨라(Numbakula)가 고목나무의 줄기에서 만든 거룩한 기둥(Kauwa-auwa)인 우주의 축이나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의 세계수(宇宙木, cosmic tree)에 해당한다.

이 거룩한 기둥은 신령이 내려오고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소로 하늘과 땅의 교섭의 통로이다. “모든 종교적 인간이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위치시키며, 동시에 절대적 실재의 원천 바로 거기에, 신들과의 교섭을 그에게 보장하는 출구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는”¹⁰⁾ 경우처럼 감로대(甘露臺) 역시 이와 같은 상징성을 보인다.

신체에서 집터로 집터에서 만대까지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카야마의 신비체험과 이에 따른 공간인식은, 처음 신비체험인 집안에서 열린 ‘굿’의 신대잡이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¹¹⁾ ‘으뜸의 신(元の神)이자 진실한 신(實の神)’은 “이 집터에 인연이 있어 이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미키를 신(神)의 사당으로 삼고 싶다.”¹²⁾고 말함으로써 나카야마를 신(神)의 사당으로 삼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당’이란 신의 영이 내려오는 장소, 또는 신을 모시는 장소, 즉 신사(神社)와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나카야마가 신의 사당이 되었다는 의미는 신이 나카야마의 몸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곳이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다.¹³⁾

8) 조현범(2013)「천리교의 근행의례」『종교연구』73집, 한국종교학회,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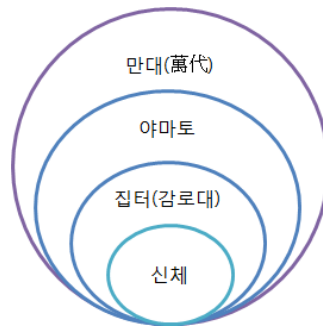
9) 메르치아 엘리야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 앞의 책, p.39 참고

10) 메르치아 엘리야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 앞의 책, p.59

11) 天理教教會本部(1995)『稿本 天理教教祖傳』, 天理教道友社, pp.1-9

12) 천리교교회본부(2006)『天理教教典』연문인쇄출판사, p.3

13) 임태홍(2004)「나카야마 미키의 공간인식: 신비체험에 나타난 성과 속의 공간을 중심으로」『일본사상』6호, 한국일본사상학회, p.119



<그림 2> 세상의 중심과 세계

나카야마의 집터로부터 시작된 세계 창조의 신화는 집터로 돌아와서 끝난다. ‘월일(月日)’의 신은 9억 9천 9백 9십 9년 이전과 같이 나카야마의 신체로 들어와 있다.¹⁴⁾ 세계 창조의 과거부터 나카야마의 현존에 이르기까지 ‘만대(萬代)’는 중첩된 세계로 묘사된다. ‘만대(萬代)’라고 하는 말은 ‘한없이 오래도록 계속되는 세상’, ‘모든 시대’, ‘온 시대’로 번역되기도 하며 만세(萬世)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나카야마가 말하는 ‘만대’는 시간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많은 세계의 중첩이며 공간적으로도 무한히 넓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¹⁵⁾ 나카야마가 말한 ‘만대’는 성숙이 분리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정토의 세계이며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세계로 믿어진다.

3. 열 가지 완전한 신(十全の神)의 방위와 만대(萬代)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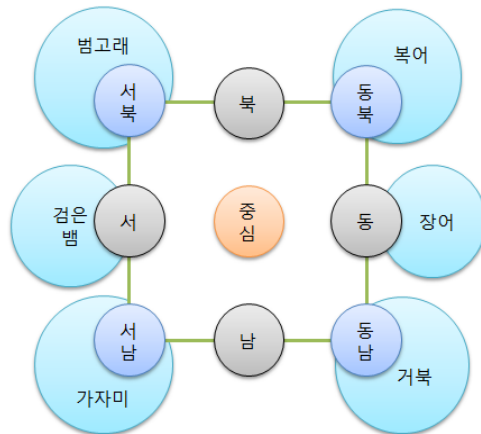
3.1 열 가지 완전한 신(十全の神)의 방위

방위는 인간이 지닌 공간인식의 형태로 공간의 한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에 대하여 나타나는 위치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방향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징으로 기능해 오면서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해 왔다. 종교적 의미가 방위를 통해 구조화 되고 질서화 되면서 종교적 세계관은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의 역할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⁶⁾

14) 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세계관」『일본문화연구』3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20

15) 임태홍(2010), 앞의 책, pp.413-416

천리교에서 방위에 대한 개념은『天理敎典』3장「으뜸의 리」에서 언급된다. 태초의 진흙바다에서 인간의 창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 창조의 ‘본과 도구’가 형성되는 과정은 방위와 관계성이 있다. 범고래, 거북, 장어, 가자미, 검은 뱀, 복어 등은 남자의 본 씨앗인 남자추형종자의리(男子雛型種子の理), 여자의 본 못자리를 여자추형묘상의리(女子雛型苗床の理), 그리고 지탱수호의리(支撐守護の理), 결합수호의리(結合守護の理), 수기승강수호의리(水氣昇降守護の理), 풍기수호의리(風氣守護の理), 인출수호의리(引出守護の理), 절단수호의리(切斷守護の理)의 본과 도구가 되어 인간 창조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¹⁶⁾ 이에 따른 방위의 배속과 신약근행에서 도구들의 위치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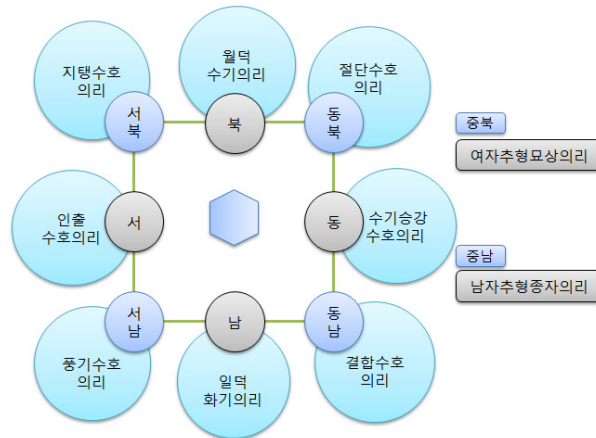


<그림 3> 본과 도구의 배속 방위

천리교에서 말하는 월일(月日) 즉, 어버이 신을 상징하는 월덕수기의리(月德水氣の理)와 일덕화기의리(日德火氣の理)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종류의 리(理)는 모두 인간 창조의 본과 도구이다. 이러한 본과 도구를 불러들이고 이끌어 들이기 이전에 본과 도구의 원형이 존재했던 방위는 북서, 남동, 동, 남서, 서, 북동의 여섯 방위이다.

16) 장재진(2014)「범화경에 나타난 ‘공간·장소·방위’와 정토세계」『한국불교학』71집, 한국불교학회, p.296

17) 천리교에서는 태초에 인간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가 되어 활동한 月德水氣의理, 日德火氣의理, 結合守護의理, 支撐守護의理, 男子雛型種子의理, 女子雛型苗床의理의 여섯 가지 수호의 리를 ‘인간 창조의 六臺’라고 한다. 태초의 이야기에 인어에게 범고래를 끌어넣은 남자의 본에 달님이, 흰뱀에게 거북을 끌어넣은 여자의 본에 해님이 들시어 인간창조의 수호를 가르쳐, 9억 9만 9천 9백 9십 9인의 자녀를 잉태하였다는 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인간 창조의 육대에 속하는 남자추형종자의리, 여자추형묘상의리 대신에 수기승강수호의리, 풍기수호의리를 더한 것을 ‘인간 몸의 근본 되는 육대’라 부를 때도 있다. 이는 十全の神의 수호의 기능과 관련되어 방위에 대한 개념과 연관되어 설명된다.(천리교 도유사/천리교 번역위원회(2003)『용재헨드북』연문인쇄출판사, pp.56-57)



<그림 4> 신악근행에서 도구들의 위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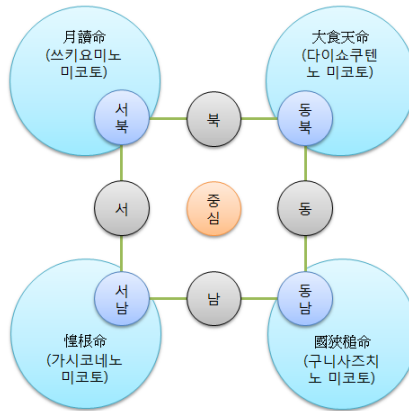
위의 그림¹⁸⁾은 신악근행을 행할 때 도구들의 위치관계에 따른 방위를 나타낸 것이다. 중남(中南)과 중북(中北)의 역할은 중앙에 감로대가 있으므로 동쪽 측면에서 근행을 올리는 방위이다.

또한 천리교에서는 ‘열 가지 완전한 신(十全의神)’¹⁹⁾이라고 해서 인간의 몸, 세계, 하늘에서의 역할과 이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별에 대해 설명한다. “맨 처음에 신이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 도구가 되는 것들을 끌어 모아, 그들에게 신의 이름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들 신들은 인간의 성장을 끊임없이 보살펴 주었는데, 그 보살핌을 ‘열 가지 완전한 보살핌’이라고 부른다고 한다.”²⁰⁾ 이 중에 네 명의 신이 배속되는 방위는 동남·서북·서남·동북이다.

18) 천리교 도유사/천리교 번역위원회(2003)『용재핸드북』연문인쇄출판사, p.56

19) 十全의神은 천리교에서 일신교적인 교의의 중심이 되어 있다. 하지만 다신교적인 측면에서 본 열 기둥의 신은 방위에 배속되는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20) 임태홍(2003)「민간신앙의 측면에서 본 일본 천리교 교조의 신관」『역사 민속학』1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p.369



<그림 5> 신의 역할과 방위

일반적으로 종교문화에서 신들을 방위에 배속시킬 때 중앙을 비롯해서 동서남북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방위이며, 사유에 해당하는 방위는 차선으로 중요한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천리교의 ‘열 가지 완전한 신(十全의神)’들 중에서 네 명의 신이 배속된 방위는 중앙이나 정 사방이 아니라 정방의 사이에 있는 방위이다.

열 가지 완전한 신들이 하늘에 배속된 별과의 관계를 보면 ‘이자나미노 미코토(伊邪那美命)²¹⁾, 이자나기노 미코토(伊邪那岐命)²²⁾, 오후토노베노 미코토(大戸邊命)²³⁾, 다이쇼쿠텐노 미코토(大食天命)²⁴⁾, 가시코네노 미코토(懺根命)²⁵⁾, 구모요미노 미코토(雲讀命)²⁶⁾, 쓰키요미노 미코토(月讀命)²⁷⁾, 구니사즈치노 미코토(國狹植命)²⁸⁾, 오모타리노 미코토(面足命)²⁹⁾, 구니도코다치노 미코토(國常立命)³⁰⁾’의 신들은 하늘에서 ‘직녀성, 견우성, 초저녁의 금성, 동북의

21) 최초 여자 모형과 묘판의 이치

22) 최초 남자 모형과 종자의 이치

23) 인간의 몸 안에서는 엄마의 태내에서 아이를 끄집어낸다. 만사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벼나 보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처럼 뽑아내는 것 일체의 보살피는 이치.

24) 인간의 몸 안에서는 출산 때 엄마와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사망 때 숨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자르는 것 일체를 보살피주는 이치.

25) 인간의 몸 안에서는 숨을 쉬고 내쉬는 것을 나누어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바람을 보살피는 이치.

26) 인간의 몸 안에서는 먹고 마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물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살피는 이치.

27) 인간의 몸 안에서는 남자의 도구로 빠가 버티는 것을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초목이나 그 밖의 다른 만사가 버티는 것으로 보살피는 이치.

28) 인간의 몸 안에서는 여자의 도구로 가족이 연결되는 것을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금전이나 혼담 등 만사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살피는 이치.

29) 인간의 몸 안에서는 온기를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불을 보살피는 이치.

30) 인간의 몸 안에서는 눈의 윤기를 보살피는 이치. 세계에서는 물을 보살피는 이치.

하늘에 모이는 별, 서남의 하늘에 모이는 별, 새벽의 금성, 서북의 하늘에 빛나는 별, 동남의 하늘에 밝게 빛나는 은색의 별, 해, 달’에 해당된다.

견우성은 동아시아의 이십팔수(二十八宿) 중에서 북방의 일곱별 중 하나인 우수(牛宿)에 속하는 별이고, 직녀성은 여름밤부터 가을밤에 걸쳐 은하수 서쪽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이다. ‘셋별’이라고 부르는 금성은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이나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이다. 이를 포함해서 해와 달에 해당하는 방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북, 동남, 서북, 서남에 대한 방위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네 장소에서 이들의 역할은 ‘하늘’과 ‘세계’와 ‘인간의 몸’으로 구분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3.2 만대(萬代)의 시간

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은 원환적 표상과 직선적 표상이다. 원환적 표상은 그리스 사상이나 니체에게서 직선적 표상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에서 볼 수 있다.³¹⁾ 나카야마 미키의 종교체험을 통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원환적 표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만대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카야마에게 있어서 ‘만대의 세계’³²⁾는 지나가버린 세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모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인식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한 나카야마의 인식방법이었다.³³⁾

엘리아데에 의하면 종교적인 인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균질적인 것도 지속적인 것도 아니며 거룩한 시간과 축제의 시간, 세속적 시간과 일상적인 시간의 지속에 대한 구분으로 인식한다. 모든 종교적 축제와 예배의 시간은 신화적인 과거에, ‘태초’에 일어난 거룩한 사건의 재현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교적 인간은 두 종류의 시간 속에서 살게 되며, 거룩한 시간은 순환적이고 가역적(可逆的)이며 회복가능한 시간이라는 역설적 양상 아래서 나타난다.³⁴⁾

31) 소광희(2012)『시간의 철학적 성찰』문예출판사, p.33

32) 『천리교 사전』에는, 천리교에서의 ‘세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天理大學研究所おやさと糸亭) 1)공간적, 지역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2)온 세상 사람들, 즉 전 인류를 의미한다. 특히 그러한 예는 ‘모든 사람을 조속히 도울 것을 서두르니, 세상의 마음들이 용솟음치도록 한다.’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다. 3)세상, 속세, 세속적인 상식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 용례는 ‘보인 후에 말을 해주는 것은 세상 혼한 일, 보이기 전부터 말해 둔다.’는 문장에 보인다. 4)미키의 집 대지(屋敷)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교단 내부자를 칭하는 ‘안(うち)’과 대비적으로 세상 일반 또는 교단 외부자를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안이나 세상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는 일은 조금도 없으므로’라는 표현에 보인다. 5)신의 세계와 대비하여 인간 세계,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세계는 높은 산이나 골짜기도 어버이에게는 아이일 뿐이야’라는 문장에 보인다. 6)신의 세계이며, ‘부모산’이 창조하여 보호하고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 세상은 신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이나 핵심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장에 보인다.(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세계관』『일본문화연구』3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13-414)

33) 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세계관』『일본문화연구』3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15

나카야마가 체험하고 인식한 “만대라는 표현은 한 세대(一代, 一世), 혹은 한 세계가 독립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만대라고 하는 말은 ‘무수히 많은 시대’, ‘무수히 많은 세상’을 의미한다.”³⁵⁾ 이러한 인식은 나카야마 자신이 과거·현재·미래를 동시에 인식하는 초월적 존재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나카야마가 시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때를 기다려야하는 ‘시간’을 강조한 경위도 보인다. 나카야마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국지화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신화적 세계”³⁶⁾를 구체적인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나카야마는 자신의 신체이자 사당 즉, 성스러운 장소를 바탕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머물게 한 정토의 세계를 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축으로 본 천리교 의례의 체계는 교조의 생애와 관련한 중요한 기념일, 일 년 주기의 절기, 그리고 기타 특정한 날을 정하여 종교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천리교 의례로 천리교가 시작된 날인 입교일에 올리는 의례인 추계대제, 교조 나카야마가 몸을 감춘날인 1887년 음력 26일을 기억하며 올리는 제전인 춘계대제, 교조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교조 탄생제, 매년 1월 1일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 감사와 두터운 수호를 기원하며 오전 5시부터 올리는 제전인 원단제, 천리교 신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유덕(遺德)을 기리고 그 영을 위로하는 의례인 영제, 터전인 본부 교회에서 춘계대제와 추계대제가 열리는 26일을 중시하여 매월 26일에 거행하는 월차제 등이 있다.³⁷⁾ 이와 같은 천리교 의례의 체계는 여러 세계가 동시에 중첩된 것으로 믿어지는 만대(萬代)의 시공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원환적인 구조로서의 표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세계 중심의 확장과 정토세계

4.1 身體에서 萬代까지

나카야마 미키가 종교체험을 통해서 인식한 세계의 중심은 ‘오품의 신(元の神)’이 자리했다 고 믿어지는 나카야마의 신체이다. 그리고 이 신체만이 독립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신체가

34) 메르치아 엘리야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성과 속, 종교의 본질』학민사, pp.61-63

35) 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세계관」『일본문화연구』3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15

36) 이-푸 투안 저/구동화·심승희 역(2011)『공간과 장소』도서출판 대운, p.142

37) 조현범(2013)「천리교의 근행의례」『종교연구』73집, 한국종교학회, pp.41-42 참고

머무는 집터라고 하는 장소와 함께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 된다. 또한 중심으로부터 확장된 세계는 아마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천축으로, 천축에서 만대(萬代)의 세계까지 확장되어 전 시공이 곧 만대의 세계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확장된 세계가 횡적인 것이라면 종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확장은 감로대(甘露臺)라고 하는 상징적인 중심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천리교의 감로대(甘露臺)는 하나의 구리기둥이 하늘과 지상, 그리고 지하를 통과하면서 세 개의 우주적 차원의 축으로 뻗어 있고 그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지점이 ‘상층의 세계에 가는 문’이라고 믿는 콰키우틀(Kwakiutl) 사람들의 거룩한 기둥³⁸⁾처럼 신령스러운 종교적 상징물로 여겨진다.

‘감로대’와 ‘나카야마의 신체’ 그리고 ‘으뜸의 신’은 셋이면서 하나의 동일한 대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믿어진다. 이것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믿어지는 이유는 ‘으뜸의 신’이 세계의 창조주이며 ‘감로대의 자리’ 곧 ‘집터’³⁹⁾가 창조의 중심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 존재하는 나카야마는 신의 사당이기에 더욱 분리될 수 없는 존재성을 의미한다.

이 중심으로부터 확장된 세계의 다른 이름을 만대(萬代)라고 볼 수 있다. 나카야마가 인식한 만대(萬代)의 세계는 그 넓이가 무한히 넓으며 집터를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넓어진다. 그리고 그 세계는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으며 동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앞뒤가 뒤바뀌어 존재하기도 한다.⁴⁰⁾ 이는 우주가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펼쳐져 나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같이, 마을이 하나의 교차점을 둘러싸고 출현하는 것⁴¹⁾과 비슷한 구조로 보인다.

4.2 萬代와 정토세계

천리교의 전륜왕 신앙은 미륵정토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륵불이 하생할 국토에 전륜성왕의 출현으로 이상세계의 형성과 함께 도솔천에서 하생한 미륵불이 성불하여 인류를 구제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천리교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으뜸의 신’이자 ‘구세의 신’인 천리왕(天理王)은 전륜성왕으로 동일시되어 믿어진다. 그리고 나카야마가 살던 일본 대화(大和)의 나라(奈良) 지방의 사람들이 정토신앙을 믿었으며 ‘나무아미타불’의 지숙

38) 메르치아 엘리아테 지음/이동하 옮김(2006)『성과 속, 종교의 본질』학민사, p.32

39) 천리교에서 ‘집터’가 세계의 중심이며 인간이 잉태된 원래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신화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된 것으로 보인다. “月日の神이자 아버지神은 긴 시간을 들여 고심을 거듭하여 인간을 만들고 … 최초로 잉태하고 나서, 9억 9만 9천 9백 9년이 경과한 그 때가 天保 9년 10월 26일로, 인간이 잉태된 원래의 장소가 이 집터이다.”(腹部武四郎他(2000)『劇書教祖物語』天理教道友社, p.294)

40) 임태홍(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세계관」『일본문화연구』3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421

41) 메르치아 엘리아테 지음/이동하 옮김(2006)『성과 속, 종교의 본질』학민사, p.41

적인 염송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러한 장소적 배경에서 성장한 나카야마의 종교적 체험을 통한 세계의 중심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아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 이슬이라는 뜻인 감로(甘露)는 천신의 음료를 의미한다. 이 감로대는 영지영장(靈地靈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령스러운 곳으로 믿어지는 상징물이다.

‘감로대’와 ‘나카야마의 신체’ 그리고 ‘으뜸의 신’을 중심으로 확장된 만대(萬代)의 세계는 지상에서는 전 세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전 우주를 상징한다. 나카야마의 종교체험의 근간이 불교의 정토신앙을 배경으로 발생했다고 본다면 만대에 대한 인식 또한 불교의 세계관인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천리교의 정토관은 ‘양기의 생활’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으로부터 몸을 빌렸기 때문에 신이 약속한 양기생활에 감사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신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양기생활로 가득한 세상이 곧 정토의 세계인 것이다. 인간이 신의 의도인 양기의 생활을 하며 살았을 때 감로대(甘露臺)를 통해서 신의 은혜를 받는다고 믿어진다.

천리교의 사상 중에서 근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인간과 신에 대한 관계에서 부모나 부부에 대한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상황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과 신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고 동시에 부성의 신인 으뜸의 신과 모성의 교조인 나카야마가 결합한 어버이신(親神)과의 관계는 ‘신-친신-씨자’로 이루어진 신성 가족이 된다.⁴²⁾ 이러한 내용을 통해 천리교가 부부나 신분에 대한 인간평등의 휴머니즘의 실천을 신관을 통해서 제시하여 정토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죽음을 새로 시작함이라는 뜻인 출직(出直)으로 정의한 사즉생(死即生)의 사생관을 보여준 천리교의 정토관은 타방정토보다도 현실정토와 영장정토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반복되는 출직을 통해서 현실 구현의 정토세계관이 보인다.

나카야마의 종교체험을 중심으로 전개된 천리교의 정토사상은,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종교나 집단이 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했던 것처럼, 기존종교의 신관이나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과 달리 신분의 질서나 남녀관계에 있어서 반봉건적이고 탈근대적인 사유를 지향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는 공간과 장소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 축이 현실의 시공을 중심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조현범(2006)「천리교의 교리적 특징과 역사」『종교연구』한국종교학회, p.120

5. 마치는 말

나카야마의 종교체험을 ‘공간·장소·방위’와 ‘시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나카야마가 살았고 신과의 합일이라는 신비체험을 경험한 ‘집터’는 성스러운 시공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선과 후의 경계가 없는 특수한 장소로 인식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세계의 중심은 ‘일본’, ‘가라’, ‘천축’을 넘어서 ‘만대’라는 세계로 확장된다. 또한 이 ‘만대’의 세계는 무량한 세계로 묘사되었다. 이 세계는 ‘나카야마의 신체, 집터, 그리고 감로대’라는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확장된 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성스러운 장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나카야마는 자신이 체험하고 인식한 세계를 미륵하생정토, 미타정토라는 현실세계와 타방정토의 이중적인 함의를 통해 ‘신체’, ‘감로대’, ‘만대’의 세계로 확장했다. 이 확장된 세계는 영장정토라는 장소를 현실정토의 실현으로 전개하여 시공을 초월한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카야마가 인식한 공간은 ‘신체라고 하는 자기 몸’, ‘집터라고 하는 자기 집’,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확장된 ‘만대라고 하는 주변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몸은 우리가 공간을 지각하는 도구이자 그 자체로 공간이다. 그래서 신체인 ‘몸’이라는 ‘공간’은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장소’가 되고 ‘방위’를 지각하고 ‘시간’을 느끼게 된다. 나카야마가 인식한 시간은 ‘영원한 지금’이라는 현재성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천리교에서 지향하는 정토세계는 나카야마의 신체, 으뜸의 신, 그리고 감로대가 셋이면서 하나로 통일되어 존재하는 초월적인 시공간으로 보인다. 이 셋이 기하학적 공간임과 동시에 초월적 공간에 존재하는 장소가 집터이다. 이 집터를 중심으로 확장된, 혹은 동시에 공존한다고 믿어지는 세계의 총체가 만대의 세계이다. 이 만대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기생활(陽氣生活)이다. 창조신의 목적이 즐거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원래 창조된 인간이 지극히 선(善)한 존재이고 원죄나 업의 원리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며, 정토가 타방(他方)이라고 여겨지는 사후의 세계나 다른 시공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기 때문에 신인공락(神人共樂)의 양기세계의 구현이 신의 창조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은 천리교의 정토세계는 근대를 맞이하는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형태보다는 종교적인 신앙형태를 위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토피아적인 원리는 항상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사회적 혹은 종교적 이상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과 원리가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소광희(2012)『시간의 철학적 성찰』문예출판사, p.33
- 腹部武四郎他(2000)『劇畫敎祖物語』天理敎道友社, p.294
- 이-푸 투안 저/구동화·심승희 역(2011)『공간과 장소』도서출판 대운, pp.63-142
- 임태홍(2003)「민간신앙의 측면에서 본 일본 천리교 교조의 신관」『역사 민속학』16호, 한국역사민속학회, pp.368-369
- _____(2004)「나카야마 미키의 공간인식: 신비체현에 나타난 성과 속의 공간을 중심으로」『일본사상』6호, 한국일본사상학회, p.119
- _____(2005)「19세기 동아시아 신종교의 탄생과 변용」『한국철학논집』16집, 한국철학사연구회, p.332
- _____(2010)「천리교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세계관」『일본문화연구』3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13-420
- 장재진(2014)「법화경에 나타난 ‘공간·장소·방위’와 정토세계」『한국불교학』71집, 한국불교학회, p.296
- 조현범(2006)「천리교의 교리적 특징과 역사」『종교연구』한국종교학회, p.120
- _____(2013)「천리교의 근행의례」『종교연구』73집, 한국종교학회, pp.39-42
- 天理敎敎會本部(1995)『稿本 天理敎敎祖傳』天理敎道友社, pp.1-9
- 천리교 도유사/천리교 번역위원회(2003)『용재핸드북』연문인쇄출판사, pp.56-57
- 메르치아 엘리아데 지음/이동하 옮김(2006)『성과 속, 종교의 본질』학민사, pp.11-63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천리교의 ‘공간·장소·방위·시간’에 대한 인식과 정토세계

- 나카야마 미키의 종교체험을 중심으로 -

천리교의 교조인 나카야마 미키의 종교체험에 있어서 ‘옴의 신(元の神)’과의 만남은 하나의 성현(聖顯)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에 따른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은 ‘옴의 신’과 나카야마 미키의 합일적인 공간인 ‘신체’와 이 신체가 머무는 집터에서 비롯된다. 세계의 중심인 이 장소에 감로대(甘露臺)가 있으며 이의 확장이 전 우주를 상징하는 만대(萬代)의 세계이다.

인간창조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 본과 도구의 원형이 존재했던 방위는 북서, 남동, 동, 남서, 서, 북동의 여섯 방위로 언급된다. 그리고 ‘열 가지 완전한 신(十全の神)’들 중에서 네 명의 신이 배속된 방위는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의 방위이다. 이와 함께 나카야마가 인식한 ‘만대의 세계’는 지나가버린 세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모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중첩된 시간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은 공간·장소·방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된다고 믿어지는 정토세계는 나카야마의 신체, 옴의 신, 그리고 감로대가 셋이면서 하나로 통일되어 존재하는 초월적인 시공간으로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확장된 만대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창조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양기생활(陽氣生活)의 실천이다.

World of the Pure Land and perception on ‘space·place·direction·time’ of Tenrikyo

- With a Focus o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Nakayama Miki -

The encounter with ‘the Truth of Origin’ i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Nakayama Miki, the founder of Tenrikyo is revelation of the saint. Recognition of place and space through such a religious experience originates from body the space where ‘the Truth of Origin’ and Nakayama Miki become one and the site where this body resides. This is where the center of the world, Kanrodai is and its expansion is ‘Ten Thousand Generations’ symbolizing the entire world.

The directions where the original frame and tools existed as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creation of humans are six, including northwest, southeast, east, southwest, west and northeast. Also the directions where four of ‘the ten complete gods’ are northeast, southeast, northwest and southwest. ‘Ten Thousand Generations’ recognized by Nakayama is not a past-gone world but a overlapped time where all exist simultaneously right at the moment.

The Pure Land, believed to be formed and developed around space, place and direction, may be a transcendent time-space where Nakayama’s body, the Truth of Origin and Kanrodai exist independently from each other and are unified. The ultimate goal of humans in such a world expanded from this is to live in God’s purpose of creation, which is to practice ‘Joyous Life’.